

최우수상

행복한 미생이 올리는 글

이무성

행복한 미생이 초과장보다 멋진 최석 과장님께 올리는 글입니다. 과장님, 저 인턴이었던 무성입니다. 쑥스럽지만, 이렇게 글로써 제 감사함을 표현해보고자 합니다. 조금 민망한 마음도 있지만, 제가 느끼는 생각을 제대로 보여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편지로나마 전해보겠습니다.

처음 가정용품파트로 배치 받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주변에서 가용파트에는 최석 과장님이 계시니, 잘해주실 것이고 많이 배울 것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기대와 불안감을 동시에 안고 인턴의 마음가짐을 되새기며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과장님이 편한 미소로 환대해주셔서 불안함을 금방 버릴 수 있었습니다. 좋은 분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를 처음으로 느꼈던 첫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인턴 생활 내내 과장님께 힘을 얻었습니다. 가르침 또한 많이 받았지요. 매장근무 때 함께 돌면서 단순한 업무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거의 매번 저를 격려해주셨던 게, 저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함께 인턴생활을 한 동기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아이 콘, 활력 넘치는 사람으로 불릴 수 있었던 기반에는 과장님의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잘할 것이라는 과장님의 격려는 제 자신감이 되었고, 덕분에 인턴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아찔한 실수의 순간도 기억합니다. 딱 한번, 평소 시간보다 지각으로 출근해서 마음 졸였던 날이 선포하네요. 이제 찍혔구나, 점수 깎였구나 하며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에 미리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티는 내지 않았지만 처명적인 실수라고 생각하며 속상하고 있었을 때, 과장님은 오히려 밖에서 점심을 사주시며 크게 혼내기 보다는 좋게 넘어가셨습니다.

그 때 얼마나 안도했는지,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덕분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인턴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인턴을 하고 있던 동기들 사이에서, 과장님은 언제나 제 자랑이셨죠. 가장 막내급인, 아직 정식으로 회사 사람도 아닌 인턴인 저에게 보여주신 관심과 배려는 다른 동기들의 부러움이었습니다.

보통 까마득한 상사와는 편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할 텐데, 저는 오히려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가끔 예의를 차리지 못할까봐 그것이 우려될 정도였으니까요.

많은 동기들이 제 상황을 부러워했던 것은 제가 단단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더욱이 무뎠던 상사와는 편할 수 없는 것이 보며 마음 좋은 동기들과, 거침없이 제 의견을 말할 수 있었던 저

의 상황은 많이 비교되었으리라 여겨지네요. 짧았다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길었던 두 달간의 인턴생활이 끝나고, 저는 마지막으로 최종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면접이 끝나고 기다리던 발표의 날, 몹시 안타까웠지만, 결국 저는 완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즐겁게 일했고 열심히 일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저이기에, 탈락이라는 발표를 받아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죠.

합격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을 하니, 말로 표현 못 할 만큼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해에 가라앉는다는 기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네요. 이제까지 저의 노력이 모두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졌었고, 너무 속상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저를 위로해주려고 만드신 술자리에서 진심으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거짓말처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를 가까이에서 두 달 동안 지켜보셨고, 직접 평가하셨던 분께서 저 못지않게 많이 속상하셨던 것은 가라앉아있던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따로 데크로 초대해주셨던 날은 여태껏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자랑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보내고, 아침에 사우나도 함께 갔었죠. 그리고 인턴까지 과장님 차를 타고 가서 바다도 보고 해물칼국수도 먹고 온 일은, 주변 지인들이 모두 입을 모아 대단하다고들 합니다.

그럴 때 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죠, 드라마에 오과장이 있다면, 현실에는 더 대단한 최과장님이 있다고, 나는 비록 미생이지만, 장그래 부럽지 않은 이그래요.

얼마 전 팀 회식에 초대해주셔서 함께 했었지만, 복잡한 자리인지라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못 드렸습니다. 오히려 그 곳에서도 감사한 마음만 더 받고 온 것 같네요.

이대리님이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고 계시고, 저 때문에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다고 하셔서 또 많이 감동했습니다. 감사함을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더욱 감사함을 받고만 왔던 자리라, 약간은 죄송하고 아쉽습니다.

과장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떨어져서 회사를 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간의 좋은 경험들 덕분에, 두 달간의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큰 기회였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요, 드라마의 장그래가 새 길을 걸었듯, 저 또한 다른 무궁무진한 기회들이 열려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다시금 취업준비생이라는 힘든 자리로 돌아왔지만, 전보다 더욱 잘 버틸 자신이 생겼거든요. 때문에 감히 저를 행복한



그림 · 박구원

“

드라마에 오과장이 있다면, 현실에는 더 대단한 최과장님이 있습니다. 나는 비록 미생이지만, 장그래 부럽지 않은 이그래입니다.

”

미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친척, 친구들... 하지만 단언컨대 제가 가장 신나서 연락을 드릴 사람은 아마 과장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면, 꼭 조만간 즐거운 소식을 들고 찾아뵙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만 글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첫 과장님께, 이무성 올림.

“따뜻한 세상 만드는 불자 되겠습니다”

수상 소감



이무성

이번에 편지를 쓰면서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고, 또 편지의 대상이 아닌 다른 고마운 분들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과장님도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생각하고 좋은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상까지 하게 되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 감사합니다. 최우수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서 감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열렬떨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제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제 편지의 대상인 과장님이 인정받은 느낌이 더 기분이 좋습니다. 다시금 그분께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바른 인성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딱딱하고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요즘의 삭막한 세대에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현대불교신문사에도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런 불자로서 계속해서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JJUN Heating System Module

“**쫄**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 온수난방 SYSTEM

-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 04 D.I.Y 시공 가능

저온수(45°C ~ 50°C) 난방 가능

■ 설치장소 ■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분야: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사찰 및 임차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특이점

KIIBO 기술보장기업 인증평가점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www.jjunheating.co.kr

■ 지역 대리점

서울: 010-5097-8291	수원: 010-5211-7260	남양주: 010-9183-9729
평창: 010-6433-8612	양산: 010-6294-6126	김천: 010-9091-4583
진주: 010-3583-7139	울산: 010-4597-5577	서광주: 010-6890-0365
익산: 010-6610-2337	여수: 010-3612-7784	고성: 010-4578-0961

제품문의 및 A/S는 전국 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깨어있는 불자의 참소식

도서출판 좋은인연

천일(3년) 청정결사

무문관 첫 백일일기

글과사진 無一 우학스님

무문관 첫 백일일기는 無一 우학스님의 무문관 수행일기로서 천일(3년) 수행 중에서 문을 닫기 7일 전부터 문을 닫은 후 94일까지의 첫번째 100일간의 일기이다. 보잘 것 없이 작고, 내뿜대로 문을 열 수도 없는 폐관의 공간임에도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과연 수행자는 어떤 눈으로 보았을까? 저자의 소박한 일상을 따라가다 보면 무료하기만 할 것 같은 폐관의 수행은 결코 무료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어디에 전주어도 더욱 더 치열하다. 비록 문은 닫혔으나 열린 눈과 열린 마음의 무문관 그곳은 일미진중함시방, 한 티끌이 시방세계를 머금듯 대우주의 아름다움과 질서정연함이 펼쳐져 있음을 느낄 수 있다.

2015년 4월 25일 초판발행 | 컬러 214쪽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http://book.tvbuddha.org

도서구입문의 053.475.3707-6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본 부처님 일대기

길에서 나서 길에서 가신 부처님.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걸으신 그 '길'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책은 오랜 시간 인도 전역을 순례하며 보고 깨달은 바를 생생한 스님의 언어로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26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다녀가신 그 길을 스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제는 아련하게 흔적으로만 남은 그 길을 통해 부처님 당시의 시대와 수행자로서의 부처님 모습을 한층 더 가깝게 접할 수 있게 된다.

아, 부처님

글과사진 無一 우학스님

2015년 4월 20 재판발행 | 컬러 262쪽